

## “광주의 미래 100년 이끌 공약 경쟁 해달라”

광주시 요청 20개 대선 공약사업 중 민주 75%, 국힘은 40% 반영  
국힘, 국비 지원 없는 ‘복합쇼핑몰 논쟁’으로 광주 민심 갈라치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일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국비 예산 지원도 없는 소모적인 ‘복합쇼핑몰 논쟁’만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선에서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수도권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사업과 미래형 친환경 공기업 등 광주지역 숙원사업 상당수를 대선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와 인공지능 중심 도시 사업의 성패가 달린 ‘특별법 제정’ 공약 요청에 대해서도 양당 모두 즉답을 회피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선 대선 공약 채택만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첫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지역 숙원·현안사업이 최소한 유력 대선후보 공약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측에 광주미래발전을 책임질 8대 분야, 20개 중점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5일 기준 민주당은 전체 20개 사업 중 75%인 15개 사업을, 국민의힘은 고작 40%에 불과한 8개를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양당 모두 최종 공약을 사실상 확정하고 공약 집 초안을 마련중이며, 일부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광주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 중 양당이 미반영한 공약은 광주와 인근 도시 5곳을 묶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등 10개 사업이다. 양당은 또 인공지능(AI) 대표도시인 광주시가 대한민국 실리온 벨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약 포함을 요청했지만, 양당 모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산업인 AI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산업에 맞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 숙원사업인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광주시 의료원 설립,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호남에너지밸리(RE300) 구축, 광주전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 조성, 민주인권기념파크 국가사업 등에 대해

이들 바라보는 광주시민의 시선이 굵지 않지만, 양당의 소모적 경쟁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복합쇼핑몰 유치 공동 대응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언선 선거대책위원회’는 동구 한 카페에서 복합쇼핑몰 건립 논쟁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쓸 수 있는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성인 학습자의 대학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도 신설됐다. 단, 수도권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해당 정원 외 모집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계획을 교육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한다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각 기관장은 소관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가 참여해 전체 정부 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행과 성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학사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소속을 바꿀 경우, 해당 학교 출신 학생이 대학을 계속 다닐 동안은 그 정원을 따로 계산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온벨리에 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 현 고2 대입부터 수시 학종에서 자기소개서 폐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대학들은 모집인원 10%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최소 10% 이상은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개정 고등교육법은 모집정원의 15% 이내로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쓸 수 있는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성인 학습자의 대학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도 신설됐다. 단, 수도권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해당 정원 외 모집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계획을 교육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한다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각 기관장은 소관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가 참여해 전체 정부 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행과 성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학사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소속을 바꿀 경우, 해당 학교 출신 학생이 대학을 계속 다닐 동안은 그 정원을 따로 계산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현세 추가 투입 우려 ▶6면



KIA 연습경기, 주전경쟁 시작됐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푸틴, 우크라이나 동부 독립승인 직후 군 진입명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러시아 평화유지군 진입을 명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또 DPR, LPR 지도자들과 러시아-공화국들 간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했다.

서명 후에는 국방장관에게 이들 두 공화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러시아군 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고 자처적으로 이들 두 공화국을 수립했다. 이후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

부군과 충돌이 이어졌고, 2015년 평화협정인 ‘민스크 협정’으로 대규모 교전이 중단됐으나 8년째 산발적 교전은 계속됐다. 이번 독립 승인은 러시아가 반군에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길을 연 것이어서, 전운이 고조된 우크라이나에 전면적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키우는 결과가 된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21일(현지시간) 밤 긴급 소집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 광주에도 복합쇼핑몰을! 윤석열이 약속합니다

호남이 잘되는 것이 영남이 잘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 아닐까요?  
변화를 열망하는 광주 시민의 뜻, 윤석열이 받들겠습니다!  
호남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어퍼컷을 날립니다.  
윤석열이 바꾸겠습니다. 광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 2윤석열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광고주명:국민의힘)